“천태 광명, 세상 곳곳에 회향되길”

부산 삼광사, 신도회 창립 54주년 기념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1월 1일 삼광사 지관전서
자비의 쌀 1만㎏ 관내 회향
모범불자 선정 표창패 수여
“전국 중심 대도량으로 성장”


삼광사는 11월 1일 경내 지관전에서 ‘신도회 창립 5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가 신도회 창립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했다.

삼광사는 11월 1일 경내 지관전에서 ‘신도회 창립 5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삼광사 신도들은 신도회 창립 기념법회에서 부산의 불교중흥을 위해 삼광사를 창립한 상월원각대조사의 뜻을 되새기며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삼광사는 법회를 봉행하며 자비의 쌀 1만㎏을 지역사회에 회향해 자비나눔 실천도량으로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삼광사가 지원한 쌀은 부산진구청과 부산시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저소득가정 및 독거노인, 복지시설 등에 회향된다.

또 신도들의 신행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모범을 보인 불자에게 표창 및 공로패 등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천태종 종정 표창패는 최민국, 한영자 불자가 수상했으며 총무원장 표창패는 김용규, 신회자, 윤경희 불자가 받았다. 공로패는 고대전, 박수희, 송정분, 이맹순, 김민경, 김금랑, 우순희, 최윤임 불자가 수상했다.

기념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비롯해 원로원장 정산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과 이경훈 삼광사 신도회장, 정봉민 · 서병수 · 이헌승 국회의원,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국 부산진구청장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연혁보고 △표창패 및 공로패 수여 △자비의 쌀 전달 △봉행사 △법문 △격려사 △축사 △축가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법문에서 “삼광사가 창립한지 54주년을 맞았다. 정말 짧은 시간이 지난 것만 같은데 많은 시간이 흘렀고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며 “상월원각대조사님 뜻에 따라 부산의 불자 1만 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도량을 건립하고 전국의 중심 사찰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원로원장 정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삼광사는 상월원각대조사님의 호념 아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산지역 불자들의 인연 공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수많은 불자들이 일주문을 오고가며 온정을 나누고 신심을 더했으며, 함께 기도하고 수행력을 증장해 왔기에 삼광사라는 대도량이 세워진 것이다. 앞으로도 삼광사는 불자님들의 오고 감이 멈추지 않는 수행처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부산에서 삼광사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대조사님의 법광과 큰 서원으로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으며, 대들보와 기와를 올려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모셔 지금의 대가람이 되었다”며 “관음정진 백만독 정신을 되새기고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를 실천하여 천태의 광명이 세상 곳곳으로 회향되게 하고 모든 중생들을 불국정토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범어사 어린이합창단, 제3회 정기음악회

10월 29일 ‘다시 꿈꾸는 꿈, 희망’ 주제로



금정총림 범어사 어린이합창단이 10월 29일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제3회 정기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1부 행복바라미 나눔부산문화제의 기부 행사에 이어 모금 캠페인이 진행됐다. 음악회에는 범어사 포교국장 눌은 스님과 장병주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사무총장, 신기열 범어사어린이합창단 후원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다시 꿈꾸는 꿈, 희망’을 주제로 열린 음악회에는 곡 ‘좋은 인연’과 ‘뭉게구름’ ‘나무의 노래’ 등 다양한 곡들이 무대를 장식했으며, 해동중 해동쇼콰이어와 범어사합창단의 특별출연이 이어졌다.

포교국장 눌은 스님은 “범어사 어린이합창단 한명 한명의 목소리에는 불자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희망이 담겨 있다”며 “세상에 만연한 혼탁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법이 꽃으로 피어나기를 노래로 발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6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조계종부산聯, 부산 벡스코서…1508명 수계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는 10월 31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제6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연합회 소속 사찰 및 전국에서 참여한 수계자 1508명이 동참했다.

연합회 초대회장 수불 스님의 증명으로 열린 법회에서 전계대화상은 수불 스님, 갈마아사리는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 교수아사리는 조계종 계단위원 지현 스님이 맡았다. 존증아사리는 원허 · 심산 · 목종 · 혜성 · 만초 · 하림 · 지일 · 원순 스님이 맡았다.

전계대화상 수불 스님은 “계를 받아 실천할 때 불제자의 모범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퍼져 나갈 것”이라며 “계를 받은 불자들은 내면의 불을 밝혀 전법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장 원허 스님은 “어디서든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마음을 닦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광사, 개원 기념 어르신 행복 기원

11월 1일, 경로 큰잔치 개최
대덕여고 학생 장학금 지원도


부산 선광사가 개최한 ‘孝사랑 경로 큰잔치’에서 주지 성문 스님과 내빈,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 선광사(주지 성문)가 11월 1일 개원 22주년을 기념하며 ‘孝사랑 경로 큰잔치’를 봉행했다.

행사는 1부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주지스님 인사 △내빈소개 및 축사 △장학금 전달 △법문 △음성공양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는 효사랑 경로 큰잔치가 이어졌다. 경로 큰잔치는 신도들의 노래자랑 및 경품추첨과 가수 박상철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을 비롯해 사상구불교연합회장 성림 스님, 사상구불교연합회 총무국장 도법 스님, 기원암 주지 지오 스님, 성불사 주지 일도 스님 등 승가내빈과 장제원 국회의원, 조병길 사상구청장, 윤숙희 사상구의회 의장, 윤태한 · 김창석 시의원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경선 스님(前범어사 주지)은 “여러분이 불성을 가지고 살면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고통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나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삶이 고통이고 지옥이 되는 것”이라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고 듣고 말하게 하는 자리인 불성을 믿고 잘 발현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라”고 법문했다.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올해 다시 어르신들을 모시게 됐다.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제원 국회의원, 조병길 사상구청장. 윤숙희 사상구의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는 선광사의 자비행을 치하했다.

한편, 선광사는 대덕여고 학생 21명에게 장학금 각 30만원, 총 630만원을 전달했다. 선광사는 매년 대덕여고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및 쌀 나눔 등을 진행해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대만식 수륙재 열린 부산 홍법사

묘통사, 10월 24~31일 대만 전통식으로



대만 묘통사가 수륙대재를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부산 홍법사에서 봉행했다.〈사진〉 묘통사는 국제적으로 수륙대재를 봉행하며 고혼과 아귀에게 법식을 공양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홍법사에서는 대만 전통방식으로 재를 올렸다. 도량결계를 시작으로 예불과 자비도량참법, 염구법회 등이 봉행됐다. 특히 수륙대재를 위해 묘통사는 대만에서 모든 장비를 직접 이운하고 200여 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묘통사는 대만을 시작으로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 수륙대재를 회향한다.

한편, 홍법사는 참여를 원하는 일반 대중을 위해 어린아이부터 가족 일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등을 함께 밝히거나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홍법사서 진행된 수륙재는 많은 환희로움을 안겨준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200여 대만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든 생명의 평화와 안위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만으로도 희유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국내 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스틸 대웅전 스틸한옥 누각 산신각 박물관 공용화장실
안내소 전시장 문중제실 한옥인테리어 종각

국내 최초 법명사 스틸 종각
초파일 산신각 특별 할인 판매 가로 2500/세로 2200=1500만원
(석가래 부연 스틸기와 내부상단 한옥문 바닥장판 전기 기본)
저렴한 금액 편리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함 간단한 조립구조
문의 010-5023-5050

진각국사 전승관 건립을 위한
모연에 동참해 주세요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한국불교의 큰 발자취를 남기신 고려 2대 국사인 진각국사 전승관 건립을 위한 땅 1평 불사를 봉행합니다.
진각국사 혜심 큰스님은 지눌스님의 뒤를 이어 고려의 2대 국사로 간화선을 크게 펼치고, 「선문염송」, 「선문강요」 등 간화선 수행하는 스님들의 큰 가르침을 전하신 한국불교의 큰 어른입니다.
사)진각국사선양회는 지난 20여 년간 진각국사께서 탄생하신 화순에서 큰스님의 얼과 가르침을 이어가고자, 19년간 다례재와 학술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선양사업을 지금껏 정성을 다해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큰스님의 뜻을 선양하기 위해 탄생하신 곳에 건립하고자 했던 전승관 건립이 소승의 힘으로 요원하여, 여러 대덕 큰스님과 불자님들에게 모연을 청하옵니다.
진각국사 전승관은 어린 학생과 지역 주민, 그리고 화순을 오는 방문객에게 진각국사의 가르침을 알리고 수행하는 장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모연해 동참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불사에 동참한 분은 사적비에 이름을 새겨 영구히 보존하겠습니다.
▮주 소 : 전남 화순군 춘양면 돌정1길 24 혜심사
▮전 화 : 010-2971-4646
▮모연계좌 : 농협 355-0057-0146-43 (진각국사)
(사)진각국사선양회 대표 대현 합장